

## 고 옥균을 추모하며

유옥균은 1972년 7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장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부를 졸업했다. 영어 교사가 되겠다던 그의 어릴 적 꿈은 그가 경기도 부천여자고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실현되었다 (1998, 3-2002, 8). 그 후 경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사로서의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기 지역 교사 연수에서 전체 수석을 차지함으로써 해외연수 기회를 얻어 호주 카톨릭 대학에서 한 달간 교사연수에 참가하기도 했다 (2002, 1-2). 그 후 미국으로 유학가서,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학위 (MA in Second Language Studies)를 받았다 (2004, 12).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카이무키 성인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2003, 11-2004, 4), 그의 석사과정의 연구 성과인 *Discourses of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in a Monolingual Society: The Case of South Korea*를 하와이 대학 연구 기관,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earch Center와 Center for Second Language Research 주최로 열린 Cultural Diversity and Language Education Conference에서 발표했다. 그는 2005년 6월에 위스콘신에서 열리는 14회 세계 응용언어학회에 초청받아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귀국 후, 부천의 한 중학교에 발령받아 첫 학기를 시작할 즈음에 어처구니없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2005년 3월 27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지적 호기심과 다양한 방면의 해박한 지식과 탐구심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지성인으로써 석사과정 공부를 위한 그의 도미는 당연한 선택이고 귀결이었던 것 같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지식인으로써 그는 여러 차례의 국내, 국외 교사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영어 교사를 위한 연수에서 논의되는 전문지식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서구 이론의 한국 영어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연수에 참여한 다른 동료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한국 영어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들인 일선 영어 교사들을 한낱 교육받을 대상으로만 볼 뿐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서구 선진 이론과 연구를 일방적으로 풀어놓는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연수가 그에게 영어 교육 연구자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켰고, 한국 영어교육 실정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 틀을 다지고자 하는 전망을 갖고서 결국 영어 교육 이론의 원조 격인 미국 대학원 유학을 결단한다.

그는 하와이 대학 SLS 프로그램의 우수한 연구진, 엄격하고 풍부한 연구 풍토와 교수들의 지도와 지지가 자신의 지적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Philipson, Tove, Girous, Pennycook and Canagarajah 같은 이 분야의 비판적 지식인과 연구자들의 생각들에 깊이 감화되었고, 그런 비판적 견지를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품어왔던 영어 세계모니와 영어교육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자기 정리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신식민지 지식인이자 영어교육 종사자로서 가져야 할 직업적 소명의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었다. 영어교육 전문가/연구자로서 갖추어 할 전문 기술과 연구 능력을 십분 키워준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범위와 깊이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만족을 하긴 했지만, “나는 영어

라는 창을 통해 그리고 서구 지식인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그의 말이 시사하듯이, 영어 교육 전문 지식의 서구중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판적 거리 두기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율적인 지식인으로써 모든 형태의 지식과 현상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각 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했다. 석사과정 동안 배우는 전문 지식과 훈련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언어능력 평가 기준, 비원어민을 바라보는 시각,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 틀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된 관심은 늘 어떻게 한국의 일선 영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당한 전문인으로써의 입지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고, 그의 이런 고민은 비판 교육 (critical pedagogy)을 교사 연수에 접목시키는 연구 디자인으로 이어졌다. 그는 영어 교사들을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이 되도록 도와서 한국 영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고 학생들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비판적 시민으로 길러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정신의 일환으로 그는 대학원 수학 동안 자기 자신의 유학 경험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그는 엄격한 자기 성찰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석사과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논문, 한국의 영어 공론화를 둘러싼 담화형성과정 연구 (Discourses of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EOL) in the case of South Korea)는 비전문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위험천만하기까지 한 중구난방의 한국의 영어 공론화 담론에 쐐기를 박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이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영어 공론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어떻게 국내 언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여, 그는 국제화라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국제언어으로써 영어가 어떻게 대중 담론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도전 받는지를 한국의 지성인 집단의 경쟁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와 언어 정책 결정과정이 어떻게 힘의 논리에 의해 가닥이 잡히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옥균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의 학문적 열정에 불을 지폈던 비판적 지식인들의 전철을 밟아 한국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 성과를 쌓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도 영어 교육을 둘러싼 기존의 담론에 비판적 목소리를 키우고 싶어했다. 박사 과정을 통해서 탄탄한 연구 능력과 전문 지식을 쌓아서 영어교육의 비판적 담론 생산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어했다.

## DEDICATION TO OK KYOON YOO

Ok Kyoon Yoo died from a heart attack on March 27, 2005. Ok Kyoon was born July 26, 1972 in Seoul. After graduating from Janghoon High School, he completed his undergraduate degree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Jungang University (1998). His childhood dream came true when he started his career as an English teacher at Buchon Girls High School, Gyeonggi-do, Korea (1998-2002). During this time, he participated in several local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nglish and also overseas in an English teacher training course at the Catholic University in Sydney, Australia (2002). While doing his graduate stud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 (UHM), he taught Korean at Kaimuki Community School for Adults, Honolulu, Hawaii (2003-2004). Ok Kyoon presented a paper on *Discourses of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in a Monolingual Society: The Case of South Korea*, at the Cultural Diversity and Language Education (CDAL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and the Center for Second Language Research, Honolulu, Hawaii (2004). He was also invited to present a paper at the 14<sup>th</sup> World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Madison, Wisconsin, U.S.A. (2005). He received his MA in Second Language Studies at UHM in December (2004). He was a middle school teacher at the time of his death.

As an independent and critical thinker, and also as a man with an insatiable desir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his decision to pursue a MA degree in the TESOL field was a natural corollary to his chosen career path. After participating in several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s, domestic and overseas alike, he became rather suspicious of the kinds of professional knowledge available in view of its direction and content. He also questioned underlying assumptions and views concerning English education

while noticing a huge gap between made-in-the west theories/research and the Korean local English teaching context. Like many of his colleagues, he took issue with unilateral training that failed to value or reflect indigenous teachers' voices and experiences. This motivated him to study further in the U.S. where many of the theories and research studies in the field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envisioning that he would be more capable of making informed pedagogical decisions in class and also of translating theories and research in ways that contribute to the Korean EFL professional situation.

He enjoyed and benefited greatly from his graduate study in the department of Second Language Studies at UHM that helped him establish independent and critical professional positions for himself. He was particularly excited about learning about critical theorists in the field such as Phillipson, Skubnab-Kangas, Giroux, Pennycook and Canagarajah through course readings, and he said those critical perspectives helped him not only better understand his long-held inquires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ELT but also rethink professional ethics as an English educator. While being quite content with the range and depth of the program since, as he said, this helped equip him with what he should know as a profession in the field, he was also well aware of the ethnocentric assumptions of the knowledge being communicated, saying "I've learned how to make sense of the world through the window of English and also through the western scholars' eyes.

As an autonomous scholar, he practiced what might be called a "talking back spirit" all the time. Instead of remaining a passive consumer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training, he challenged conventional ways of conceptualizing practices in the field such as assessment of language proficiency, politeness, views of non-native speakers, and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teacher education. In addition, his primary

concerns were with how to empower bilingual English teachers and how to cultivate their identities as legitimat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s in Korea, which led to his research design on the incorporation of critical pedagogy into teacher education. He believed helping English teachers become reflective and critical thinkers is a pivotal step into bringing about changes in education and helping students become critical citizens in this globalization era. In this spirit, he strived to practice critical self-reflection on his own learning experience during his graduate study.

At the center of his scholarship is his timely and much needed study on discourses of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EOL) in the case of South Korea, his MA scholarly paper. Noticing the recurrent public debates on the issue over recent years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domestic language situations, he explored competing discourses on EOL in the intellectual community in Korea focusing on how dominant ideologies of globalization and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are reproduced and opposed in mass media. This draws our attention to how language itself and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discourse are implicated in power.

Ok Kyoon had a dream. Envisioning himself to be aligned with those critical minds who inspired his scholarly work, he wanted to carry on research on what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concerning EFL in Korea,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ritical voices in the fiel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when his voice might carry more weight after earning a PhD.

Younghee Her